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이사 길재홍 동문

급변하는 금융시장의 흐름을 읽어내는 역량



F
R
O
N
T
I
E
R



MBA 학생들이 졸업 후 가장 진출하고 싶은 분야 중 한 분야는 바로 금융업이다. MBA 졸업 이후 금융 분야로 진출하고 싶어하는 동기들을 위해, 금융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어떠한 인재를 찾고 있는지 이야기를 듣기 위해 신한 BNP 파리바 자산운용에 근무하고 있는 투자커뮤니케이션 팀 이사 길재홍(FMBA 99학번) 선배님을 찾아갔다.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은 2009년 1월, 신한금융그룹 자회사인 신한 BNP파리바 투신운용과 SH자산운용의 합병을 통해 공식 출범한 신한 BNP파리바 자산운용은 한국 자산운용업계의 선두 운용사이다. 신한 BNP파리바 자산운용은 신한금융그룹과 유럽 및 글로벌에 강력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BNP파리바 그룹의 파트너십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신한BNP파리바 자산운용은 순수 외국계 회사 대비 국내 시장과 고객에 대한 이해가 뛰어나고, 국내사에 비해서는 글로벌 리서치 및 전 세계 투자기회 발굴 측면에서 장점을 갖추고 있다.

현재 어떤 일을 하고, 회사 내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습니까?

전에는 자산 운용을 하는 펀드 매니저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신한 BNP 파리바 자산운용에서 투자커뮤니케이션 팀 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금융 상품이 고도로 진화하면서 복잡한 금융 상품을 고객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역할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투자 커뮤니케이션 팀은 판매와 상품 설계 및 운용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신한 BNP 파리바 자산운용의 사업 부문과, 각 사업부서의 역할, 그리고 사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신한 BNP 파리바 자산운용은 크게 자산 운용, 상품 기획, 영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신한 금융 그룹과 BNP 파리바 그룹과 파트너십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과 외국계 기업의 문화가 공존하여 자유롭고 개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상호 협력을 추구하는 분위기입니다.

현재의 자리에 오르기 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학부 때 통계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SDS(삼성데이터시스템)에서 해외투자 데이터 베이스 구축 업무를 맡아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금융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금융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펀드 매니저로 근무하기 시작했고, 그 당시는 해외 투자 초기 단계라, 회사에서 금융 역량 강화를 위해 홍콩 금융사에서 해외 투자 방식을 배우는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선발되기 위해 어학을 비롯한 투자관련 지식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금융 역량과 어학 능력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펀드 운용업무를 하던 중에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금융공학 과정에 진학하게 되었고, 현재는 신한 BNP 파리바 자산운용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입니까?

운용과 영업의 중간에서 각종 업무를 조율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 스트레스나 업무강도는 어느 정도 있는 편입니다. 이 분야에서 근무하려면 자기 스스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글로벌 파트너십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 대내외의 각종 영어회의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일상대화 수준을 넘어선 담당 분야의 전문내용을 영어로 표현하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어학역량이 요구됩니다.

금융 분야를 지원하려는 후배들에게 조언 요청 드립니다.

카이스트 학생들은 개인의 능력은 뛰어난데, 그 능력을 회사에서 잘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회사에서는 신입사원, 차장, 부장, CEO에게 요구하는 역량이 다릅니다. 입사 초기에는 개인의 성과가 중요하지만, 조직 사회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 능력을 키우고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회사와,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으면 합니다. 신입 사원을 뽑아 훈련 시켜놓으면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당장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된 인재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업무에 적합한 경력을 갖춘 사람을 뽑으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력이 화려하면 뽑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화려한 이력보다는 그 업무를 할 만한 적합한 경력을 갖춘 사람을 선호합니다.

요즘은 해외 우수 대학 졸업자, 국내 MBA 졸업생 등 우수 인력이 많이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 저서 기본 실력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금융 분야 지원자들이 CFA 공부 하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 이것을 좋다고 생각합니다. CFA 공부하려면 짧게는 3년이 걸리는데,

긴 시간 동안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금융 관련 역량이 쌓이게 됩니다.

면접에 들어가면 지원자들에게 지원동기를 이야기 물어 보는데,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자신의 이야기만 합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그 회사를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 지도 이야기 해야 합니다. 또, 면접관들은 그 과정을 거친 사람이기 때문에, 지원자들의 답변이 그냥 입에서 나온 마음에 없는 말인지 본심인지 뚱뚱히 보입니다. 솔직히 답변하고, 마음에 있는 것을 이야기 하십시오. 먼저 그 분야의 게임의 규칙을 알아야 하고, 그 규칙에 따라 자신을 바꾸어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그것을 체화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말, 생각, 행동이 하나로 모여서 그 사람의 이미지를 완성하는 것 입니다.

현재 한국의 금융 산업은 Corporate finance 분야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발달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금융 분야는 금융 소비자를 핵심으로 하는 Consumer Finance 분야가 추가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드시 필요하고 누군가는 연구 해야 하는 분야인데 아직까지 선행연구가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금융 시장, 고객의 금융자산을 유치하려는 금융 회사. 소비자는 자신의 투자자금을 믿고 맡길만한 누군가를 찾게 됩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그 역할을 잘 수행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금융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황신혜 기자

